

2024년 6월 05일(수)

즉시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0매, 사진 0장)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대외협력국

문의 : 김현지 정책국장 010-6374-3109 조일출 대외협력국장 010-8965-1722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의 카라 회계 부정 주장은 전부가 허구"

카라, 조직적 회계부정 주장 낱낱이 반박하는 사실관계 제시해
'골드바'는 조직개편 후 권고사직 직원 2인의 위로금으로 관행적 지급액의 1/3 수준
탈세는 전혀 허위사실, 배임 행위 가능하지 않아
내외부 회계 감사와 투명한 회계로 가이드스타 4개년 연속 만점 수상 이력 제시

○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는 사실 확인 없이 일부 회계 자료를 임의 해석 후 횡령과 배임 탈세 등 죄목을 들며 허위사실을 유포(6월 4일 기자회견)하며 카라 대표와 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이하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지회장 고현선)와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 위원장 우희종)의 허위 주장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는 문답집을 배포하였다.

○ 본 문답집에서 카라는 차명계좌 사용을 조장하여 탈세를 돕고, 대표가 골드바를 구입하여 착복했다거나, 대표가 KK9과 동물폭행 의혹을 받는 A활동가와 비리 관계로 연결되어 폭행 행위를 비호한다는 주장이 왜 황당한 허위인지 증빙과 함께 제시하는 한편 카라의 촘촘한 회계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제시했다.

○ 카라는 "동물폭행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과 후원회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을 또한번 약속했다. 그러면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활동가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측에 해당 녹취록 원본 파일 제출과 노사 동수 각각 2인의 공신력있는 훈련사 추천"을 6월 3일 직접 요청과 공문으로 재차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사실규명과 합당한 징계처분은 당연한 수순임을 밝혔다.

○ 더하여 카라는 문제를 제기한 노측이 진정 동물 복지의 개선을 원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동물폭행 문제에 관련하여 사실 규명과 관련자 징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훈련사 추천과 녹취록 원본 파일 제출로 협조해 주어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카라는 이와 같은 노력을 고의로 무시하며 사측이 동물폭행 혐의를 덮으려 한다거나, 그 이유가 후원금 비리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유치한 흑색선전이라며 일축했다.

1. '골드바'를 구입해 대표가 착복했다는 배임 부정축제 혐의 주장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2023년 5월 9일부터 향후 카라 20년을 지탱할 조직 구조 개편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성되면서 기존의 병렬식 팀제로부터 '국'체계로 바뀌었으며, 영화제팀과 동물병원이 대표 직할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때 병원의 기능과 이후 조직의 행정과 직무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HRD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각각 동물병원 원장, 그리고 전 사무국장의 권고 사직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분은 각각 10년, 5년의 장기 근속자로서 카라의 발전을 위해 용퇴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권고 사직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조직개편회의때 보고되었습니다. 보통 권고 사직의 경우 월 급여의 3~6배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관행이지만, 카라의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의 고마움과 노고를 잘 드러낼 기념이 될만한 방안으로서 감사 인사를 새긴 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의 경우 1달 급여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금을 구입했으며, 국장의 경우 당시 금 값이 상승해 한달 급여를 넘는 금액이 금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보상으로 "금"을 처음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는 2023년 11월 24일 카라 도서관에서 열린 조직개편위원회 회의입니다. 당시 회의는 현 민주노총 카라지회 간부인 투쟁부장 김계옥, 교육선전부장 김명혜 가 참석한 자리였고 김명혜가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하단 회의록 참조).



조직 개편전 병렬식 팀제에 의한 카라의 구 조직도



병렬식 팀을 묶어 업무 시너지를 내고 중간 관리자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 개편 후 조직도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연계(흐름도) 개념도와 발전의 방향성 (시민 캠페인 -> 행정 조직 체계 HRD-> 동물과의 유대 확장 -> 법 정책 제도 실현 -> 동물권 플랫폼 확장 (시민 캠페인))

김명혜: 허는 일단은 지금 제가 8년 차니까 이제 한 2년 뒤면 이제 장기 검수 효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10년 그러니까 8년 정말 이렇게 몰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쉬이 좀 필요할 거 같긴 해요. 그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좀 풀로 좀 이렇게 쉬면서 리프레시하고 또 새로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또 업무에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카라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6개월 제한 사유에 보면 팀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장기 근속 휴가 대상자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서국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팀장들의 또 다음 세대 팀장들이 좀 더 키워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약간 이런 이렇게 순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팀장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애가 영화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제는 진짜 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제가 더 다음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 두고 이제 또 갔다가 저는 또 다시 실무에 또 들어와서 또 거기서 또 업무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서라도 저는 이런 장기 근속 휴가가 카라에서 조금 이런 리프레시와 순환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포상은, 사실 포상을 주고 싶으시면, 저희 그런 거 하잖아요. 총회 때 다른 단체들 보면 10년 뒤 활동가들한테 근데 이 만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포상하고 막 축하해 주고 막 이런 그렇게 그냥 포상을 하고 이 휴가는 휴가로서의 어떤 의미를 좀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23년 11월 24일 도서관에서 있었던 조직개편 회의에서 활동가 포상으로 금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활동가(현 민주노총 교육선전부장)

임순례: 명혜 님 제안이 약간 좀 재산의 제안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 한도는 한 35만 원 정도 하잖아요. 10돈을 준다 그러면은 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지금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많으면 300만 원 정도 사이일 텐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게 금 10돈을 받아서 좋은 거 보다 얘기한 대로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 공로회라든지 감사회라든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 또 좀 뿌듯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진경: 금 열돈 좋은 거 같아요.

임순례: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면 한 달이든 한 달 반 정도 그걸로 가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3개월 정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금을 10돈이든 20돈이든지, 20분이 아니니까 만약에 3개월 3개월을 여차피 3개월 월급을 하면 20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또 다른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 리프레시도 하고 감사의 표시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를 새롭게 배우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취미라든지 아니면 업무 연계해서 한 3개월 집중해서 학원을 다니면 뭐 하나 배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4개월을 그냥 의무적으로 쉬고 뭔가 이렇게 물건으로 뭔가 포상을 눈에 딱 띄는 그런 감사패나 포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전진경: 금은 이거에 부가적으로 주는 거죠. 여기서 깎아서 주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임순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6개월을 저기 유급휴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3개월이나 4개월 유급 휴가를 하고 나머지 세이브 되는 부분을 이제 금값으로 돌리는 거죠.

전진경: 내가 활동가면 이내 활동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그거 받아갖고 금을 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

임순례: 내가 사는 거랑 어떤 단체에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받는 거랑 틀리잖아요.

쇼연주: 그쵸 그건 상징적이고 축하의 의미를 많이 담는 거니까

김명혜: 그거라면 그냥 이걸 이거대로 하고 금은 약간 작게라도 그냥

전진경: 그렇게라도 그냥 주는 거지 쌘빱하게

제안에 대해 수용하며 휴가와 별도로 금 기념품을 따로 주는 게 좋겠다는 대표와 임원진의 의견



소정의 기념품 전달식 현장 - 손글씨로 쓴 감사 카드와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



카라 더불어 숨 센터의 동물병원 개원부터 파주 더봄 센터 이전까지 수고해 주신 동물병원 원장님의 용퇴에 따른 감사패

2. KK9 차명 계좌 사용 협조로 탈세를 돕고 비리 공동체로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애니멀호더나 개농장 재개발 현장에 버려진 개 등 구조건 중 과반수 이상이 한국 내 입양이 어렵고 비사회화 상태인 중대형 비품종 개체들이라 어려움이 컸습니다.

해외입양 절차는 생각처럼 쉽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카라도 검증된 해외입양 전문단체인 KK9R과 협력을 선택했으며, 현재 대다수의 단체들이 소수의 해외입양 전문 단체나 봉사자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K9는 미국 뉴욕으로의 안전한 입양과 훈련사에 의한 사회화 훈련이 동시에 가능한 단체로서 카라의 엄격한 입양 기준을 충족하는 **유능한 해외입양 연계 단체**였습니다. 카라는 케이케이나인 레스큐(이하 KK9R, 대표 김현유)을 통해 미국 뉴욕 등지로 다수의 6세령 이상의 비사회화 개체들과 한국 내 입양이 어려운 중대형 건들의 훈련을 통한 입양을 진행하여 이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죽을때까지 입양가지 못한 채 계류함으로써 질병치료나 보호비가 계속 소요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막대한 회원들의 후원 회비를 절약해 다른 활동에 투입하고 입양 개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들의 효과적인 사회화와 안전한 입양’이 협업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카라는 KK9R을 통해 297마리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개들을 성공적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와 공동대책위(위원장 우희종)은 카라가 차명 계좌 입금을 통한 KK9R 법인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KK9R 법인 설립 이전, 임의단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원천징수 후 인건비로 입금한 것입니다. 카라에서는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교육 강사비는 개인의 통장으로 원천징수 처리된 금액을 입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KK9R이 법인이 된 이후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비용으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와 공대위에서 공연히 유포한 KK9R의 탈세와 회계 의혹 주장에 대해서 KK9R 대표의 SNS 계정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입장문을 즉각 게시하였고 민주노총 카라지회와 공대위의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수가 공모한 시민단체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명과 함께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KK9R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7yAwpahHtL/?igsh=OWE2dWp1ZW9hbDFJ>

별첨 1 – KK9와 함께 진행한 카라의 해외 입양 성과

3. 동물 폭행을 비리 공동체로 연루되어 있어 무마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동물 폭행 의혹에 대해 시민들과 후원자 그리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동료단체에 거듭 사과드리며 개선을 위해 자성하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를 규명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를 진행하고 개선방안 도출까지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3일 '폭행 현장 녹취록'의 원본 파일(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원본 녹취 파일)과 공정한 사건 조사와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훈련사 2인의 추천을 노측에 요청하고 공문으로도 재차 요청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문제 해결의 시발점인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본 녹취록이 제출되고 훈련사 추천이 되는 즉시 조사와 인사위원회 개최가 시작될 것입니다. 빠른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라는 훈련사님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더 발전적인 동물사회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배움에 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식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며 조사된 내용에 따라 폭행 의혹이 제기된 A 활동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김선기 대표교섭위원, , 고현선 지회장,
제 목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의 건

-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 님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외부에 제출 되었던 녹취 원본 파일을 요청 드립니다.
- 이와 더불어, 공신력 있는 훈련사 2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님, 설채현님은 사측의 추천 훈련사임을 참고 바랍니다. 끝.

(사) 동물권행동 카라



시행 카라-2406-118-02 (2024.06.03) 접수 국장 대표 전진경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차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폭행 혐의 조사와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해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요청한 공문 사항
민주노총 카라지회에서 아직까지 파일제출 등 일체 답변이 없는 상황임

4. 동물권행동 카라의 자랑,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객관적 외부 평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업년도 기준 **2019년부터 2022년 최신까지 4년 연속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효율성** **방면에서 한국가이드스타 만점**을 받을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가이드 스타는 특히 회계 투명성을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카라는 동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만점을 받을 만큼 투명한 회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 카라의 **투명한 회계 확보를 위해 공신력있는 세무법인과 회계사를 통한 내외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수하는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횡령이나 이익 추구**는 불가능합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의 회계 투명성 관리를 위한 준수법률 :

민법, 상속및증여세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외 기타

1.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예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재산목록 주무관청 제출

2. 공익법인의 상증법상 각종 의무

사업연도별 장부작성 및 비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및 사용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내·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 및 보고서 제출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사항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및 사후관리
주식 출연, 취득에 따른 의무사항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일
공익법인의 수혜자 특정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세부 내역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이행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의무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 모집 · 사용 완료 보고 의무
기부금품 출연강요 금지
기부금품 접수와 공개, 보고서 제출의 의무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관한 서류작성 및 비치
등록목적 이외에 기부금품 사용금지
모집비용 충당비율 준수

(끝)